

중학생 100여명 하마터면...위험한 해양체험

해남서 중2 등 139명 탑승한 고무보트 14척 돌풍에 표류됐다 구조 해경 "대형참사 날 뻔"...수련장 "우리가 구조할 수 있었는데" 되레 불안 도교육청 명확한 안전수칙도 없이 체험 강행 방침...학생·학부모 불안

해남에서 해양수련활동에 참가한 나주 지역 중학생들이 갑자기 불어닥친 돌풍으로 해상을 표류하다 구조되는 아찔한 상황이 발생했다.

자칫하면 제2의 세월호 참사가 될 뻔한 순간이었지만, 해양수련활동을 주관한 전남도교육청 등은 명확한 안전수칙조차 없이 해양체험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27일 완도해양경찰과 전남도교육청, 순호학생수련장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3시 20분께 해남군 송지면 순호해수욕장 인근 해상에서 고무보트 14척이 표류하다 해경에 구조됐다.

고무보트에는 나주 빛가람 중학교 2학년 학생 134명과 교사 5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이날 인명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바다에서 돌풍으로 표류한 자체가 대형사고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나주빛가람 중학교 학생들은 전남 교육청 산하 전남자연탐구수련원 순호학생수련장에서 2박 3일 과정으로 운영하는 해양수련활동 1일차 교육 '우리 모두 항해사'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가 표류사고를 겪었다.

학생들은 수련장측의 지시에 따라 12인승 무동력 고무보트에 나눠 탑승한 뒤 각자 노를 저으며 체험에 나섰다. 이날 오후 3시께 갑자기 초속 8m의 강풍이 불면서 고무보트 자체가 통제불능 상태에 빠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수련장측은 뒤늦게 위험성을 인지하고 복귀 결정을 내렸지만, 이미 학생들이 탄 고무보트들은 해안에서 500여m나 밀려난 뒤였다. 수련장측은 자체적으로 긴급 수습에 나섰다. 제트스키 1대와 구명선 1척만으로 100명이 넘는 학생들을 구조하기엔 역부족이었다.

다행히 인근에서 조업중이던 민간어선

2척과 어선의 신고를 받고 급파된 해경 연안구조정이 구조에 합류했고, 해상에 설치된 전복 양식장에 보트를 접안하는 방식으로 전원 구조를 완료했다.

당시 구조에 나선 해경 관계자는 "고무보트들이 바다 위에 설치된 전복 양식장 시설물에 걸리거나 학생들이 시설물을 붙잡고 버텼기 때문에 먼 바다로 떠내려 가지 않은 것"이라며 "특히 사고 이후 더욱 강한 돌풍이 불어 구조가 조금만 늦었다더라도 보트가 전복 되는 등 인명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컸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수련장측은 평소 해양체험 활동은 해안에서 50m 떨어진 곳에서 진행했으나, 이날 갑작스런 돌풍에 고무보트가 파도를 따

라 밀려난 것으로 전해졌다. 순호학생수련장은 해상체험 특화수련장으로 뱃목 진수, 모래사장 체육활동, 고무보트 탑승 등의 교육활동을 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해상체험활동에 관련한 명확한 안전수칙 등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연안체험활동이나 수상레저사업의 경우 해양경찰에 반드시 신고를 하도록 돼 있지만, 순호학생수련장은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 비영리단체 구분돼 별다른 신고 없이 자체적인 운영회칙으로만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수련장측은 자체적으로 제트스키 1대와 구명선 1척을 안전장비로 운영 중인데, 프로그램 1회 기준 수백명이 참여하는 해상체험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고 발생시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수련장측은 "기상 등을 고려한 자체적인 판단으로 체험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개

장 이래 안전사고가 발생한 적은 없다"면서 "해경의 구조 지원이 없었다더라도 자체적으로 구조조치를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 괜히 해경까지 나서 이슈화가 됐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나 해경측은 "당시 바람 상태 등을 감안하면 수련장의 소형 어선으로 보트에서 학생들을 안전하게 구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수련장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전남교육청 관계자도 "수련장 안전수칙은 자체적으로 수립해 교육청에 보고하는 구조"라면서 "아직 사고현장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수련장 운영을 중단시킬 계획은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순호학생수련장은 전남교육청 소속으로 해양체험활동 특화수련장이다. 지난 1997년 개장했으며, 연 평균 5500명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지난 26일 해남군 순호면 해상에서 표류중이던 학생들이 해경에 의해 구조되고 있다.

"고물상 열겠다"며 땅 빌린 뒤 폐기물 무단 투기 일당 구속

고물상을 운영하겠다고 땅을 빌려 각종 폐기물을 무단 투기한 일당이 경찰에 구속됐다.

광주광산경찰은 "허가 없이 빈 땅에 폐기물을 버린 혐의(폐기물 관리법 위반)로 A씨와 B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광산구의 한 공터 2000㎡가량을 빌려 1500㎡에 이르는 불법 폐기물을 쌓아둔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11.5t 화물차 1대당 160만원 정도인 시세보다 40만~60만원 싸게 폐기물을 처리해주겠다고 한 뒤 땅 주인에게는 계약금만 지불하고 잔금을 치르기 전 생활·사업장 폐기물을 버려두고 도주했다.

경찰은 공범 1명의 행방을 쫓는 한편 지난해 6월부터 전남 지역에서도 비슷한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자동차 휠 32개 훔친 고물 수거 50대 부부 적발

광주북부경찰은 27일 자동차 휠 32개를 훔친 혐의로 김모(56)씨 부부와 훔친 물건인줄 알고고 이를 사들인 박모(30)씨를 각각 특수절도와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부부는 지난달 7일 새벽 3시 30분께 광주시 북구 각화동의 한 타이어정비업소에 침입해 280만원 상당의 차량용 휠 32개를 손수레에 실어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물상 업주인 박씨는 훔

친 물건인 줄 알면서 자동차 휠을 2차례에 걸쳐 구입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김씨 부부는 평소 함께 고물을 수거하는 일을 하던 중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 부부는 훔친 휠을 집에 보관하다 주변 고물상에 16만 여원을 받고 판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훔친 휠에는 고가의 수입 자동차 휠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뺑소니·추돌사고...만취 운전 잇따라 적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사람을 치거나 다른 차량을 들이박은 운전자들이 잇따라 검거됐다.

광주서부경찰은 27일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로 백모(33)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백씨는 이날 새벽 4시 5분께 광주시 서구 치평동 한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 A(69)씨를 자신이 몰던 승용차로 치고 도주하다가 500여m 떨어진 센트럴호텔 앞 도로에서 정차중인 차량을 들이박은 혐의다. 백씨 차량에 치인

A씨는 현재까지 의식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조사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위에 해당하는 0.147%로 측정됐다.

광주서부경찰은 앞서 지난 26일 밤 9시 55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278%의 만취 상태로 서구 동천동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300여m 운전하다 추돌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황모(53)씨를 붙잡았다. 황씨는 주차를 시도하던 중 주행 중이던 차량과 충돌하는 바람에 음주운전이 발각됐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식비 제공 정중순 장흥군수 벌금 80만원...직위 유지

광주지법 장흥지원 형사합의부(부장판사 박정운)는 동창회에 식사비를 내는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정중순 장흥군수에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단체장의 직위를 이용해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자백을 했고 다음 선거가 3년 8개월이 남았다는 점에서 선거를 염두에 둔 행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선배들이 고향을 방문한 데 대해 편의를 제공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정 군수는 지난해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고향을 방문한 동창회 회원 30여

명에게 식사비 등을 대신 제공하는 등 270만원을 부적절하게 낸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접대를 받은 동창회원들이 전국 각지에 살며 정 군수에 직접적인 선거권 행사를 할 수는 없다라도 이들의 친인척 등이 장흥에 사는 만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기소를 염두에 둔 행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선배들이 고향을 방문한 데 대해 편의를 제공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정 군수는 지난해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고향을 방문한 동창회 회원 30여

/장흥=김용기 기자 kykim@kwangju.co.kr

공기업 취업 미끼 8200만원 받아 챙긴 50대 '쇠고랑'

공기업에 자녀를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50대가 구속됐다.

광주서부경찰은 27일 "피해자들에게 취업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김모(55)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평소 애용하던 A(여·63)씨 등 2명에게 취업알선 명목으로 8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공기업 하청업

체 대표를 사칭해 공기업 간부들과 친분을 과시한 뒤 피해자들에게 자녀의 이력서·자기소개서 등을 요구하고 면접관 식사 접대비를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또 "자신에게 투자하면 가상화폐로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B(60)씨로부터 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영화 상영 2시간동안 여제자 추근 댄 성추행 교사 집행유예



○법원이 영화관에서 제자를 성추행한 광주의 한 중학교 교사에 대해 징역형인 집행유예를 선고.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각엽)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중학교 교사 A씨는 지난해 9월 11일 광주 시내 한 영화관에서 사제동행 영화 관람 행사에 참석한 제자 B양의 옆자리에 앉아 2시간여 동안 지속적으로 손을

만지고 얼굴을 밀착해 귓속말하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것.

○A씨는 "B양의 손을 만지거나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진술 내용이나 신고 경위 등을 볼 때 피해자 주장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특히 A씨가 여학생이 피해 사실을 지어냈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을 하지 않고,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호남동 대원빌딩 총별 "특별분양"

높은 전용면적 75%
11,12층 천정고 6M
분양가 470만원 ~
환기 공조 시스템 완비
중앙 냉난방 시설완비
300대이상 주차공간

"추천업종"

- 1 **유틸리티센터, 레저스포츠 시설**
- 2 **특급 한방병원, 공공기관 사무실**
- 3 **일반 / 공유오피스 사무실**
- 4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분양문의 : (주)대원빌딩
062) 234-1233
 위치 : 동구 천변우로 369 (호남동 23-2)